

종단-시민모임 ‘손잡고’ 해고노동자 지원

총무원장 스님, 대표단 예방 받고
“노란봉투 캠페인 동참 노력” 밝혀

노동자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모임인 ‘손잡고’ 대표단이 지난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에 불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 등 각계인사 400여 명인 모인 시민모임 ‘손잡고’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란봉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노란봉투 캠페인은 10만 명이 4만7000원씩 모아 쌍용차 손해배상 액수인 47억 원을 마련해 쌍용차 노동자를 돕는 모금 캠페인이다. 이날 예방에는 이수호 전 민주노총위원장, 고광현 전 한겨레신문사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손잡고 대표단

은 불교계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노란봉투 캠페인에 불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쌍용자동차를 포함한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손해, 가압류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 뒤, “손잡고 운동에 불교계에도 널리 알려 동참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이웃 종교간 모임에서도 ‘손잡고’의 뜻을 알려서 종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노란봉투 캠페인에는 2만541명이 동참해 13억7252만6737원이 모금됐다. 캠페인은 오는 5월말까지 이어지며, 노란봉투 홈페이지(www.socialants.org)나 후원계좌(하나은행 272-910017-02504 예금주 아름다운재단)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시민모임인 ‘손잡고’ 대표단이 지난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에 불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올해 2000명 돌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먼스님)가 올해 5000명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참자가 2000명을 돌파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실시한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에서 113명을 접수받으며 현재까지 2082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희망등록 2000명 돌파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장기기증 희망등록

자에 비해 1127명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 3월7일 희망등록자 1000명 돌파 이후 2달여 만에 이룬 성과다. 특히 예년에 비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목표인 5000명 돌파 역시 무난히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2000번째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이명범 씨는 “평소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생명나눔을

만나 참여하게 됐다”며 “부처님께서 보시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사장 일먼스님은 “올해 생명나눔실천본부 20주년을 맞아 불교계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앞장서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500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환경훼손 선교사 별장 즉각 철거하라”

지리산권 전통사찰 성명

지난 2009년, 불교계와 시민단체 반대로 무산된 국립공원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재가 다시 시도되고 있어 지리산권 전통사찰들이 선교사별장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와 제19교구본사 화엄사를 비롯해 남원 실상사, 산청 대원사, 구례 연곡사, 천은사 등 지리산 권역 전통사찰들은 지난 9일 ‘자연환경 훼손하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 철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절대적인 자연보존구역인 지리산 환경을 심각히 훼손하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을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환경훼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 등록문화재 등재가 추진되고 있어 지역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

지리산권 사찰들은 성명서에서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민족문화유산의 보고로 지리산 권역의 전통사찰들은 수행과 전법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감수하

고 있다”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이 있는 지역은 절대적인 자연보존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으로 즉각적인 선교사 별장 철거”를 요청했다. 또한 “일부 기독교 단체가 국립공원내의 휴양시설이었던 왕시루봉 별장을 철거하지 않고 종교시설 확장 선교활동을 도모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의 무사안일한 행정집행과 이에 편승한 일부 기독교 단체의 무분별한 선교활동에 엄중대처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리산 왕시루봉 일대 선교사 별장은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들이 건립한 휴양시설로 현재 12동이 남아있다.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군중사관후보생 모집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주지 정우스님)는 한국불교의 미래인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헌신할 군중사관후보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 불교대학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군중사관후보생 선발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선발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9월17일 최종합격자 18명을 발표하게 된다.

군중사관후보생 선발자에게

광주 BBS 사장
이민수 씨 임명

BBS 광주불교방송 신임 사장에 이민수 씨가 임명됐다.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이민수 동양건설 대표이사를 5월2일자로 광주불교방송 사장으로 인사 발령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민수 사장은 1948년 태

자연환경 훼손하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 철거하라

지리산은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는 靈山이며 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그러기에 지리산 권역의 많은 전통사찰들은 수행과 전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공공복리적인 차원에서 이를 감수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국립공원내의 휴양시설이었던 왕시루봉 별장을 아직도 철거하지 않음은 물론 등록문화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종교시설의 확장도 선교활동을 도모하고 있음은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일부 정부기관들이 종교시설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런저런 눈치를 살피는 행위가 도를 지나쳐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소재지는 서울대 학습림이자 절대적인 자연보존을 위한 국립공원지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지난 2009년 진행된 등록문화재

등재요청시 불교계는 물론 다수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의견을 중재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도 위 건축물의 현 소재지 보존보다는 꼭 필요하면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등록한다는 것은 보존의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바 이는 필연적으로 인공적인 조형물의 축조와 사람들의 출입을 가져와 생태계의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화엄사와 지리산권역의 전통사찰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며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하였지만 정부기관과 문화재청은 무대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등록문화재 등재활동이 시작되면서 정부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 조사 등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불기2558(2014)년 5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남원 실상사 산청 대원사
구례 연곡사 구례 천은사

1.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선교사 별장이 자연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건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철거하라.

2.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학교습림에 존재하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이 등록문화재로 등재되는데 동의한 이유와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3. 문화재청은 왕시루봉 선교사별장의 등록문화재 등재시도 관련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라.

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금번 사태에 엄중히 대처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화엄사, 쌍계사 등 지리산 권역의 전통사찰들은 수행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에 호응해 온 지금까지의 입장을 전면 취소하고 사찰 소유지내 역사적 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작업을 통하여 불교유적에 대한 복원 불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